

# 가 보

이미임

큰오빠가 자신의 이름이 대표로 적힌“이○○ 가문” <병역명문가>패를 받았다. 상패에는 1대인 아버지를 비롯하여 2대인 아들 넷과 3대인 다섯 명의 손자 이름이 모두 올라있다. 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잘 마쳤기에 이를 빛내기 위한 증표로 받은 가문의 영광인 가보이다. 은색 상패 직사각 테두리에는 3대가 군 복무 중 흘렸을 땀방울이 인내와 끈기의 결정체인 무궁화 꽃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상패 아랫부분 중앙에는 커다란 무궁화 꽃 한 송이가 마치 큰오빠처럼 중심을 잡고 활짝 피어있다. 중앙에 놓인 무궁화 꽃 양 옆에는 꽃송이를 받치고 있는 나뭇잎이 가족들처럼 소중히 놓여있다.

집안 장남인 큰오빠는 마지막 조카가 병역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병역명문가 가문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취합했다. 취합한 서류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병무청에 직접 접수했다. 마침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되었다. 동시에 큰오빠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도지사 표창까지 받는 영예를 안았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했다.

아버지는 6.25전쟁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직접 싸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차출되어 군사훈련을 받았고 경무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였다. 아버지는 슬하에 네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 병역명문가 선정이다 보니 병역과 관련이 없는 두 딸의 가족과 아버지 친손녀들은 병역명문가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필두로 하여 네 아들과 네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만 해당되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가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말씀하였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잘 것 없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으로 귀결시켰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부응이라도 한 것일까. 이제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고 아버지 가문도 병역명문가 가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장남인 큰오빠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 어느 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어언 40년이 되어야 비로소 푸른 제복을 벗었다. 큰오빠가 군 복무를 끝내고 퇴역하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강원도 어느 부대 연병장 앞 계단으로 모였다. 아직 쌀쌀하던 3월이었다. 퇴역식이 거행되었다. 우리는 계단 상단에 마련해 놓은 내빈석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내빈석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식순에 따라 영광스러운 보국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눈시울을 훔치자 우리도 모두 눈시울을 훔쳤다. 퇴임식 마지막 순서였다. 큰오빠 내외는 커다란 꽃다발을 목에 걸고 군용 자동차에 올라 나란히 섰다. 큰오빠 내외를 태운 자동차가 연병장을 돌며 카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빗발 같은 박수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큰오빠 내외가 카퍼레이드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올 때까지 내내 눈물만 훔쳤다. 부모님께 편지를 보낼 때마다 푸른 제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면 장남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큰오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것이다. 그 공로로 보국훈장을 가슴에 안았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일가를 이루었다. 큰오빠 딸은 경찰간부로 복무 중이다. 아들도 장성하여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잔잔히 빛나는 은색 상패에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네 아들과 다섯 명의 손자가 나라를 위해

흘렸을 땀방울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보석처럼 값지게 머금었다. 도가니에서도 아랑곳없이 잘 견뎌낸 은빛이 화려하다. 이제 병역명문가에 입성한 가족들은 나라를 위해 흘린 값진 땀방울을 가슴 한 편에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3대가 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가보는 저들의 가슴속에서 무언의 힘으로 자리 잡고 혹 살아가는 일이 힘에 부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3대의 이름을 감싸고 있는 은빛 무궁화 꽃송이가 더없이 또렷하게 빛난다.